口訣과 漢文訓讀에 대하여

安　秉　禧

차 례

Ⅰ. 序 言 ……145
Ⅱ. 口訣과 그 同義語 ……146
Ⅲ. 訓讀과 그 한 資料……153
Ⅳ. 結 論 ……161

Ⅰ. 序　　言

近者의 國語學界에서는 舊譯仁王經의 發見으로 口訣에 대한 關心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져 있다. 下限이 14世紀라고 믿어지는 그 資料는 15世紀以後의 文獻에서 散見되는 口訣表記와 비슷한 墨書의 記入을 보여 준다. 그러나 從來의 口訣表記는 音讀되는 漢文原典의 句節에 挿入되는 國語의 助詞 또는 動詞「ᄒᆞ—」와 指定詞「이—」의 活用形들, 이른바 機能語에 局限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舊譯仁王經의 墨書는 漢文原典의 字順이 바뀔 뿐아니라, 原典의 漢字가 釋으로 읽혀지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資料의 紹介에서 從來의 口訣 또는 吐는「退化된 口訣」내지「簡素化된 口訣」이라 指稱하고, 原來의 口訣은 이 資料의 墨書와 같이 漢文을 새겨 읽는 方法을 보이는 것이라고 한다.[1] 여기서 口訣의 槪念을 새로이 規定하려는 問題가 일어났다. 또한 그 墨書의 解讀은 國語史, 특히 한글 創制 以前의 國語史를 硏究하는 데 큰 寄與를 할 것이다. 口訣에 대한 關心을 불러 일으킨 機緣인 것이다.

筆者는 이 數年間 國語史資料에 대한 全般的인 檢討를 進行하면서, 口訣表記의 資料도 당연히 調査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5, 16世紀 文獻의 口訣表記에 나타난 借用漢字 중 表音字만을 整理 發表하게 되었다.[2] 이 發表는 舊譯仁王經과는 전혀 無關하게 이루어진 것이나, 그것이 提起한 問題에 外面할 수만은 없게 되었다. 口訣을 다루는 이상, 口訣의 새로운 槪念規定에 論及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筆者는 15世紀以來의 文獻에 보이는 口訣과 그에 連關있는 用語를 살펴봄으로써 口訣의 槪念을 明示하여 두려고 한다. 한편으로는 옛날의 漢文讀法이 어떠한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口訣을 넣어서 音讀하는 方式과 새겨서 읽는, 곧 訓讀하는 方式이 並存한다면, 舊譯仁王經에 대한 解釋이 달라질 수도 있겠기 때문이다. 그런데 筆者는 한글創制以後의 文獻에서 한글로 口訣이 달려 印出되었으면서도 舊譯

---

1) 그것이 처음으로 紹介된 것은 昨年 9月 23日 午後에 있었던 成均館大學校 主催 東洋學學術大會 語文分科의 討論會席上이었다. 沈在箕교수에 의하여 口頭로 간단히 행해진 것이다. 그러나 곧이어서 다음과 같이, 沈교수에 의한 正式紹介가 있었다. 이로써 舊譯仁王經의 墨書가 原來의 口訣을 보인다는 主張이 學界에 提起되었다. 이 主張은 앞으로 論難이 있겠지만, 새로운 資料를 發掘하고 紹介한 沈교수의 功勞는 크다. 여기 깊은 謝意를 표하는 바이다. 이제 沈교수의 紹介를 筆者가 아는 限度에서 發表順으로 적어두기로 한다.

口訣의 生成·변천——高麗시대 資料발견에 대해〈1975年 9月 25日字 京鄕新聞〉／口訣의 生成 및 變遷에 對하여〈9月 30日 서울大學校語學硏究所主催 月例發表會에서 口頭發表〉／仁王經口訣에 대하여—— 口訣의 生成背景 및 그 釋讀機能을 中心으로——〈10月 21日字 西江大學校 서강타임스〉／口訣의 生成 및 變遷에 대하여 ——生成背景 및 釋讀機能을 中心으로——, 韓國學報 第一輯〈1975年 겨울〉, pp. 2~22.

2) 註 1)의 東洋學學術大會 語文分科의 主題發表의 하나로서 9月 22日에 행해졌다. 當日 印刷物로 配布된 要旨는 成均館大學校에서 刊行될 豫定이다.

仁王經과 같은 墨書가 記入된 資料를 發見하였다. 漢文讀法과 밀접한 關係가 있다고 믿어진다. 그것에 대한 紹介를 덧붙여 口訣의 槪念規定과 舊譯仁王經墨書의 性格究明에 이바지하려고 한다.

Ⅱ. 口訣과 그 同義語

먼저 口訣이란 用語가 歷代文獻에서 어떻게 使用되어 왔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가 調査한 바에 의하면, 口訣이 가장 일찍 나타난 文獻은 楞嚴經諺解다. 1461年(世祖 7 天順 5) 10月에 쓴 金守溫의 跋文에 나오는 다음 句節이 그것이다.

1. 恭惟我主上殿下……萬機之暇 特徹乙覽 親加口訣 正其句讀 命工曹參判臣韓繼禧及臣守溫 悉以國語依文而譯

世祖가 楞嚴經에 口訣을 親히 덧붙여 句節의 斷落을 바로 잡았다는 것이다. 世祖가 이러한 口訣을 단 事實은, 함께 실린 韓繼禧(末尾가 잘려 確實치는 않으나, 글의 內容으로 韓繼禧로 推定된다)의 跋文과 桂陽君의 進箋文에도 보인다. 그런데 여기의 口訣은 위에 引用된 글의 文脈으로도 알 수 있지만, 楞嚴經諺解를 펼쳐 보면, 音讀되는 原典의 漢文에 句讀點이 찍힐 자리에 한글로 表記한 國語의 機能語를 가리키고 있음이 確認된다. 다시 말하면 從來 우리가 써오던 槪念 그대로인 것이다.[3]

이러한 뜻의 口訣은 다른 刊經都監刊行의 佛經諺解에서도 보인다. 특히 世祖는 口訣에 상당한 造詣가 있었던 모양으로, 거의 모든 佛經諺解에 口訣을 親히 달았다고 한다. 그 若干의 資料를 들어둔다.

2. 今我聖上……於此禪經 親印口訣 乃命儒臣 招集緇流 詳加諺釋 刊板流通
(禪宗永嘉集諺解 1463年 信眉跋)
3. 今我聖上……親定口訣 命儒臣韓繼禧 譯以國語 (金剛經諺解 1464年 孝寧大君跋)
4. 恭惟主上承天體道烈文英武殿下……楷定口訣於契經 發揮心法於了義
(圓覺經諺解 1465年 黃守臣進箋文)

口訣은 이러한 跋文등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書名이나 編著者名 뒤에도 보인다. 圓

3) 口訣에 대한 從來의 槪念을 가장 잘 整理하여 놓은 것은 다음 著書다. 崔鉉培, 고친 한글갈, 서울 1961, pp. 97~101. 釋義와 諺解(飜譯)도 口訣과 對比시켜 正確히 規定하고 있다. 그러나 若干 석연하지 않은 점이 있다. 첫째, 李滉의 四書三經釋義 (心經釋義는 잘못, 書名이 心經釋疑기 때문이다.)를 例證으로 하여 釋義를 「새김」이라고 한 일이다. 새김은 다음 章에서 論議할 바와 같이 釋, 곧 諺解다. 釋義는 全文의 飜譯이 아니라 難解語句의 註釋과 飜譯이기 때문이다. 둘째, 實錄에 歷代의 王이 口訣의 硏究와 制定에 努力한 記錄이 가끔 明記되어 있다고 한 일이다. 口訣에 關心을 보인 王은 鮮初의 世宗, 世祖등과 中期의 宣祖다. 특히 宣祖朝 校正廳에 의하여 四書三經의 口訣과 諺解가 確定된 뒤로는 口訣에 대한 論議를 實錄에서 거의 찾지 못한다. 歷代王이 口訣의 硏究와 制定에 힘썼다는 것은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는 것이다.

覺經諺解의 卷頭에는 內題인 書名과 原著者名에 이어 다음과 같이 2行에 걸쳐 口訣과 翻譯을 한 사람의 이름이 있다.[4]

5. 御定口訣／慧覺尊者臣信眉 孝寧大君臣補 仁順府尹臣韓繼禧等譯

이것은 위 引用文과 符合되고, 金守溫의 圓覺寺碑文의 一節, 「萬機之餘 親定口訣 漢諺交宣」으도 뒷받침된다. 요컨대 世祖가 口訣을 단 책이란 뜻이다. 口訣의 이러한 用法은 儒經에도 있다.

周易傳義의 大文에 한글로 口訣을 달아놓은 刊本(乙亥字本)이 現存하고 있다. 1466年(世祖 12)의 刊行으로 믿어지는 이 책도 卷頭의 書名에 이은 第2行에 「康寧殿口訣」이라 있다.[5] 世祖가 口訣을 달았다는 뜻으로 解釋된다. 이러한 編著者欄뿐 아니라 書名에도 口訣이 들어간 일이 있다. 論語의 大文에 한글로 口訣을 단 책(16世紀刊行으로 보이는 乙亥字本)의 內題는 「論語大文口訣」인 것이다. 이러한 用例에 비추어서 우리는 口訣이 15世紀부터서 오늘날과 꼭같은 뜻으로 使用된 用語임을 斷定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口訣이 翻譯文에서는 「口訣」이 아니라, 항상 「입겾」으로 나타난다. 다음이 그러한 例들이다.

6. 上이 입겨ᄎᆞᆯ ᄃᆞᄅᆞ샤 慧覺尊者ᄭᅴ 마ᄀᆡ와시ᄂᆞᆯ (楞嚴經諺解 跋 4a)
7. 이 禪經에 親히 입겨ᄎᆞᆯ 一定ᄒᆞ시고 儒臣을 命ᄒᆞ시며 緇流를 불러뫼호샤 仔細히 말로 사교ᄆᆞᆯ더으샤 (永嘉集諺解 跋 2b)
8. 親히 입겻 一定ᄒᆞ시고 (金剛經諺解 跋 2b)

여기 7, 8은 앞 引用文 2, 3을 翻譯한 것이다. 口訣이 입겾으로 되어 있다. 6은 引用文 1의 內容이다. 1의 金守溫跋은 翻譯되지 않았으나, 그 앞에 실린 世祖의 跋文은 翻譯

4) 이 2行은 刊經都監에서 印出한 책에만 明文化되어 있다. 李崇寧선생 所藏本인 卷下三之一·二 2卷1册이 그것이다. 그에 대한 紹介는 다음 책에도 있다. 李仁榮, 淸芬室書目, 서울 1968, pp. 29—30. 그러나 刊經都監이 廢止된 뒤에 印出된 책은 이 2行이 空欄으로 된다. 儒臣들의 反撥로 말미암은 것이라 생각된다. 실지로 刊經都監이 廢止된 이듬해인 1472年 (成宗 3) 金守溫의 跋文을 붙여 印出된 圓覺經諺解(高麗大學校 六堂文庫소장本 등)가 그러하다. 法華經諺解, 蒙山法語 등도 그러한 例에 속한다. 最近 나타난 法華經諺解 卷 1—6 6册은 刻法, 着墨, 紙質 등으로 刊經都監印出의 책이라 믿어지고 있으나, 卷頭 1行의 空欄은 일러야 1472年의 印出本이라 推定되는 것이다. 通文館소장本인 蒙山法語의 卷頭1行 空欄도 그것이다. 後期重刊本에서 「慧覺尊者信眉譯解」라 한 글이 1472年 金守溫의 跋文을 가지고 印出된 그 책에는 없는 것이다.

5) 中世語의 口訣資料에 대하여는 따로이 紹介할 豫定이다. 그러나 周易傳義口訣이 世祖에 의하여 1466年 刊行한 것이란 記述은 後代의 文獻에도 根據를 찾을 수 있으나 一次的으로 實册의 形態와 當時의 實錄記事에 의한다. 世祖實錄 11年(1465) 9月부터 이듬해 3月에 걸쳐서 王이 臣下와 周易口訣을 論議한 記事가 10餘處에 보인다. 御定口訣, 親定口訣이란 記事도 보인다. 특히 12年 3月 丙午條에는 다음과 같은 頒布記事가 있어, 그 책 刊年을 말하여 준다. 즉,

幸成均館……上謁文宣王如儀 頒親定周易口訣.

되었는데, 거기 나온 것이 6이다. 世祖跋의 一節「予亦乘暇添力 一定於師」를 翻譯한 뒤에 나온 夾註에 있다. 引用文 1에 비추어 口訣의 翻譯이 입겾임을 알려 주는 것이다.

그러나, 입겾은 當時의 文獻에서 翻譯이 아닌 경우에도 쓰인다. 우리말 註釋인 引用文 6도 바로 그것이지만, 訓民正音과 釋譜詳節이나 月印釋譜의 世祖序文에 쓰인 漢字註釋에 보인다. 中國語의 虛辭(또는 虛字)인 漢字를 풀이할 경우에 쓰인 것이다.

9. 哉ᄂᆞᆫ 입겨체 쓰ᄂᆞᆫ 字ㅣ라 (月釋序 9a)

이러한 뜻으로는「입겾」이 더 많다. 語末이 有氣化與否로 다르나, 用法은 完全히 같다. 다만 입겾이 指定詞「이라」 앞에만 나타날 뿐이다.[6] 그것의 用例를 들기로 한다.

10. 之ᄂᆞᆫ 입겨지라 (訓諺 1a, 釋詳序 1a)
11. 矣ᄂᆞᆫ 말ᄆᆞᄎᆞᆫ 입겨지라 (訓諺 2)

이러한 漢字의 註釋에 나오는 입겾은 虛辭를 가리킨다. 語助詞 또는 助字라고도 한다. 文章의 흐름 또는 語氣의 進行을 돕거나 句節을 끊어지게 하여, 文章의 實質的인 意味를 나타내는 實辭들을 돕는다는 뜻이다. 여기서 우리가 漢文을 읽을 경우 挿入되는 口訣은 虛辭에 一致하는 것으로서, 實辭라 할 原典漢文의 句節을 끊고 文脈을 밝혀주는데 不過하다고 할 것이다. 口訣을 翻譯하여 입겾이라 한 까닭이 바로 여기 있다.

그런데 이러한 記述에는 중대한 잘못이 있다. 口訣의 譯語가 입겾이라 함은 本末의 顚倒이기 때문이다. 입겾을 漢文에 섞어쓰려니까 口訣로 적힌 것이다. 吏讀에서「다짐, 마름, 마지기」를 侈音, 舍音, 斗落(또는 斗落只)로 적는 것과 같은 借字表記다. 그러므로 中國語의 口訣 곧 秘術을 口授한다는 中國語 本來의 口訣은 입겾이라 翻譯되는 일이 絶對로 없다. 翻譯에 있어서도 口訣로 나타나는 것이다. 金剛經의 六祖口訣後序에 쓰인 口訣은 中國語의 口訣이다. 그 翻譯은 위의 引用文 7, 8과는 다르다. 다음에 翻譯과 原文을 대조해 보인다.

12. 佛法이 口訣ᄭᅳᆯᄫᅮᆷ 아닌ᄃᆞᆯ 알리라 (金剛後序 15a)——知佛法이 不止於口訣而已리라 (同 8b)
13. 或이 六祖ㅣ 글모ᄅᆞᄂᆞ다ᄒᆞ야 口訣이 六祖지손것 아니라 疑心ᄒᆞᄂᆞ니 (同 15a)
——或者ㅣ 以六祖ㅣ 不識字ㅣ라ᄒᆞ야 疑口訣이 非六祖所作이라ᄒᆞᄂᆞ니 (同 8b)

이상의 說明에 根據하여, 우리는 입겾의 借字表記인 口訣과 中國語로부터의 借用語, 곧 漢字語인 口訣을 區別하여야 할 것이다.[7] 混亂을 미리 막기 위하여는 입겾을 되살릴 것이

6) 이 差異가 文獻의 年代와 連關되었을지도 모른다. 釋譜詳節과 月印釋譜는 미세하지만 言語狀態의 差異를 보이는데, 입겾이 釋譜詳節과 訓民正音諺解에 보이고 입겾이 月印釋譜에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後述한 바와 같이 겾은 共通으로 나타나므로 共存形으로 處理함이 온당하다.

7) 이 글의 序言에서 말한「原來의 口訣」도 中國語 本來의 口訣이란 意味가 아니라, 口訣로 借字表記된 입겾을 두고 한 말이다. 이에 대하여는 舊譯仁王經의 墨書를 다룰 다음 章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도 입겾이 아닌 漢字語의 口訣을 쓴 用例가 있느냐 하는 물음이 提

바람직스럽기도 하다. 그러나 입겾이 이미 廢語化하였는데다, 口訣이 그대신에 通用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도 입겾을 口訣이라 부르기로 한다. 表題의 口訣도 바로 입겾을 뜻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면 이 口訣의 語源은 무엇일까? 다시 말하면 입겾의 語源을 따져볼 必要가 있다.

입겾은 「입」과 「겾」의 合成語로 생각된다. 입은 現代語에도 쓰이는 「입」(口), 또는 이에서 派生되었을 「잎—」(現代語의 「옮—」)이다. 口頭로 행하는 말을 뜻한다. 그러나 겾은 간단히 說明되지 않는다. 現代語에서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中世語의 文獻에서는 單獨으로도 쓰이고 있다. 입겾과 마찬가지로 訓民正音等의 漢字註釋에 상당히 많다. 類型으로 나누어 檢討하기로 한다.

14. 乃ᄂᆞᆫ ᄉᆞᄒᆞᄂᆞᆫ 겨치라 (月釋序 13a)
15. 聿은 말ᄉᆞᆷ始作ᄒᆞᄂᆞᆫ 겨치오 (同 16b)
16. 嗚呼ᄂᆞᆫ 한숨디ᄐᆞᆯᄒᆞᆫ 겨치라 (同 23a)

이들은 앞에서 引用한 입겾 또는 입겾의 用例와 비슷한 뜻으로 쓰이고 있다. 다음과 같은 用例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17. 乎ᄂᆞᆫ 아모그에ᄒᆞᄂᆞᆫ 겨체 쓰ᄂᆞᆫ 字ㅣ라 (訓諺 1a)
18. 則은 아ᄆᆞ리ᄒᆞ면 ᄒᆞᄂᆞᆫ 겨체 쓰ᄂᆞᆫ 字ㅣ라 (同 12a)
19. 夫ᄂᆞᆫ 말ᄉᆞᆷ始作ᄒᆞᄂᆞᆫ 겨체 쓰ᄂᆞᆫ 字ㅣ라 (月釋序 1a)

앞의 15와 19를 比較하면, 「字」가, 덧붙었으나 같은 內容의 註釋이라 斷定된다. 입겾에 대한 9와 10—12의 引用文도 字가 있고 없기는 하나, 같은 內容임과 同軌다. 그러므로 겾은 입겾과 同義語라 할 수 있다. 이것은 訓民正音等의 漢字註釋에 대한 檢討로써 뒷받침이 된다.

그 漢字註釋을 보면, 漢字를 4群으로 나누고 있음이 確認된다. 第1群은 名詞類, 第2群은 動詞類다. 名詞類는 該當되는 固有語나 다른 漢字語, 動詞類는 「ᄉᆞ」로써 名詞化하여 註釋한다. 다음이 그 典型이다.

20. 訓은 ᄆᆞᄃᆞᆯ씨오 民은 百姓이오 音은 소리니 訓民正音은 百姓ᄆᆞᄃᆞ치시ᄂᆞᆫ 正ᄒᆞᆫ 소리라 (訓諺 1a)

다음으로 第3群은 副詞類인데, 「말, ᄠᅳᆮ」이라 註釋된다. 第1, 2群일지라도 文脈에 따

起된다. 區別한 用例가 있을 때 本文의 記述은 더욱 굳어지기 때문이다. 筆者가 본 用例는 四溟大師惟政의 禪家龜鑑跋文의 一節에서다. 義天이 翻譯한 禪家龜鑑은 漢文本인 禪家龜鑑과 原文에서 差異를 보인다. 이에 대하여는 다음을 참조할 것. 筆者, 臺灣公藏의 韓國本에 대하여, 韓國學報 第1輯, pp.117—19. 이 漢文本이 달라진 것은 惟政의 「口訣」에 緣由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 口訣은 金剛經의 六祖口訣과 같은 뜻이다. 우리나라 사람이 쓴 借用語의 用例라 할 것이다. 그 跋文은 다음과 같다.

時萬曆己卯(1579, 宣祖 12) 春節 曹溪宗遺 四溟隱峯惟政 拜手口訣 因爲謹跋

른 特異한 用法일 때는 이 方式으로 註釋된다.

21. 爲은 엇뎨ᄒᆞ논 마리오 (月釋序 13b)
22. 爲은 엇뎨ᄒᆞ논 ᄠᅳ디오 (同 2a)
23. 尊은 노ᄑᆞ신 부니시니라 ᄒᆞ논 ᄠᅳ디라 (釋詳序 1a)

그리고 第4群이 입겾, 또는 겾으로 註釋된 虛辭類다. 綜合하여 말한다면 第 1, 2群은 文脈과 獨立시켜서 행한 註釋이고 第 3, 4群은 文脈과 結付시킨 註釋이다. 물론 文脈과 獨立시킨 註釋은 註釋의 定義에 어긋난다. 文脈과의 獨立與否는 前者와 後者의 註釋態度를 相對的으로 가리켜 부른데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다시 後者는 文脈에 結付되어 어떤 意味를 가지고 있는 第3群과 文脈을 밝혀 주거나 語勢를 도울 뿐인 第4群으로 나뉘어진다. 여기 第4群이 虛辭類라고 하여 입겾과 겾이 곧 虛辭를 뜻한다고 論理를 飛躍시킬 수는 없다. 第3群이 副詞類라 하여 뜯과 말이 副詞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다만 이러한 註釋態度에서 일단 입겾과 겾이 同義語로 쓰였다고는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重大한 事實이 看過되어 있다. 입겾은 아무런 修飾語가 없이도 쓰이고, 또 그것이 더 頻度가 높지만, 겾은 반드시 修飾語를 가지고서 쓰인 점이다.[8] 그러므로 겾이 바로 입겾의 겾 그것이라고 斷定된다 하더라도, 그 意味는 좀더 究明되어야 할 것이다.

中世語에서 겾이 지금까지 보아온 것과는 다른 用法을 보이는 例는 다음 例文에서다. 입겾의 語源을 밝히는 데 關鍵이 되리라 믿는다.

24. 紺은 ᄆᆞᄌᆞᆼ ᄑᆞᄅᆞᆫ 거긔 블근 겨치 잇ᄂᆞᆫ 비치라 (月釋X, 52a)

이 紺字를 中國의 辭典類에서 찾아보면 「深青而揚赤色也」, 또는 「青而含赤色也」라 되어 있어, 위의 引用文과 合致된다. 즉 빛깔의 바탕은 深青인데, 거기에 붉은 빛깔이 풍기는 것이다. 여기서 겾은 어떤 事物의 重要한 性質에 곁따르는 副次的인 性質이라고 解釋된다. 앞에서 되풀이된 바와 같이, 漢文의 構文에서 차지하는 虛辭의 機能이 그와 같고, 原典漢文의 句節에 挿入되는 口訣의 機能도 漢文의 理解에 있어서는 그와 같이 副次的인 것이다. 따라서 虛辭를 註釋하면서 겾이나 입겾을 使用한 것과, 口訣을 입겾이라 한 것에 首肯이 된다. 입과 겾의 合成語인 입겾은 原典을 읽을 때 文意의 바탕이 되는 原文句節에 들어가서 文意를 더욱 밝히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것이 口訣 곧 입겾의 語源이다.

8) 借字表記인 口訣이 줄어져서 訣로도 쓰인다. 上註 5)에서 言及된 周易口訣이 「易訣」(世祖實錄 11年 11月 戊辰條)로도 나타나는 것이다. 또 牧牛子修心訣의 卷頭 2行은 「丕顯閣訣／慧覺尊者譯」인데, 前者의 丕顯閣(王世子便殿) 訣은 御定口訣, 또는 康寧殿口訣과 같은 用法이다. 요컨대 口訣을 줄인 것이다. 그러므로 겾은 입겾의 略語로 볼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漢字語인 口訣이 줄어져서 訣로 되는 데 類推된 것이지, 입겾의 略語로서의 겾을 借字表記한 것이 아니다. 겾이 입겾의 略語로 쓰인 例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漢字語 口訣의 略語인 訣은 앞에서 引用된 12, 13의 金剛經六祖口訣後序의 口訣이 六祖解序에서는 訣(翻譯도 「訣」이다)로만 나타나는 것에서 確認된다.

그런데 입겾의 겾은 「말」 또는 「말씀」과 合成되어 쓰이는 일이 있다. 어떤 文章이나 發話의 意味가 아니라 그것이 傳達되는 語調를 가리키고 있다. 다음이 그 用例들이다.

25. 病은 셜볼씨라 言은 ᄠᅳᆮ겨체 ᄡᅳᄂᆞ니라 (月釋序 10a)
26. 자네 나토 져므셔 뵈고 말겯도 됴ᄉᆞ오니 (捷新Ⅳ, 16—17)
27. 자네 말ᄉᆞᆷ겻치 보ᄃᆞ랍고 (同 14a)

25는 「痛言在疚」의 註釋인데, 言은 翻譯에 전혀 反映되지 않는다. 文章의 意味와는 無關하고, 語調를 위하여 쓰였기 때문이다. 26과 27은 近代語의 初期資料이다. 日本語의 「ことばのせつ」, 「おことばのげぢ」를 翻譯한 것이다. せつ는 「節」, げぢ(下知)는 아랫사람에게 내리는 분부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げぢ도 스스로 謙讓하여 相對方의 말을, 분부를 바뚤 듯이 듣는다는 뜻으로 解釋하여 「節」과 같이 겾으로 翻譯한 것이라 생각된다. 요컨대 이들 26, 27도 말, 또는 말씀과 合成된 겾이 말의 語調를 가리키고 있음을 말한다. 또하나 덧붙여서 이들은 近代語의 資料이므로, 이 겾이 적어도 17世紀까지는 癈語化되지 않았다는 事實도 말하고 있다.[9]

이상으로 口訣이 입겾, 또는 입겾을 借字하여 表記한 것이며, 또 그 입겾의 語源도 究明되었다고 믿는다. 그런데 口訣의 同義語로 吐가 진작부터 있었다. 이제 그 用語의 出典과 用法을 살펴보기로 한다.

吐가 가장 먼저 나타난 文獻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世宗實錄이다. 아는 事實이지만 口訣과 同義語임을 밝히기 위하여 여기 引用하여 둔다.

28. 上語卞季良曰 昔太宗命權近著五經吐〔凡讀書 以諺語節句讀者 俗謂之吐〕 近讓之不得 遂著詩書易吐 唯禮記四書無之 (世宗實錄 10年 (1428) 閏 4月 己亥)

權近이 太宗의 命을 받고 마지 못하여 詩經, 書傳, 周易의 吐를 지었다는 內容이다. 그러나 우리의 注意를 끄는 것은 이보다도 吐에 대한 實錄編纂者의 夾註(위에서는〔 〕안에 引用)다. 漢文을 읽을 때 國語로써 句節을 밝히는 것을 俗에서 吐라 한다는 그 夾註는 吐가 바로 口訣임을 말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夾註가 아니라도 口訣과 吐가 同義語란 事實은 위의 陽村權近의 吐를 成宗때의 成俔이 口訣이라 한 다음 글이 알려주고 있다.[10]

29. 至我朝 陽村梅軒兄弟能明經學 又能於文 陽村定四書五經口訣 (慵齋叢話 卷1)

이와 같이 吐와 口訣이 同義語로 쓰인 事實은 柳希春의 日記를 檢討하면 더욱 뚜렷해진다. 柳希春은 經筵에서 보인 博學으로, 1574年 (宣祖 7) 10月 四書五經의 口訣과 諺解에

9) 입겾, 또는 겾의 廢語化時期는 明確히 推定할 수 없다. 그러나 捷解新語 以後의 文獻에 겾이 보이지 않는 事實과, 石峯千字文의 「입겨 야」(也) 등이 覆刻本에서도 「잇계, 잇기」 등으로 되는 事實을 생각한다면, 18世紀以後에 廢語化되었다고 할 것이다.

10) 世祖實錄에서는 周易에 국한된 것이나, 「陽村權近口訣」(11年 10月 癸未條 등)이라 하고 있다. 成俔의 記錄과 一致하는 것이다.

着手하라는 宣祖의 命을 받는다. 그 王命의 記錄에 口訣과 吐가 同義語로 나타나는 것이다.

30. 上曰……今四書五經口訣諺釋 紛紜不定 卿之學問精博 世所罕有 四書五經口訣及釋 卿皆詳定 (甲戌(1574) 10月 10日)
31. 盧公(즉 右議政盧守愼) 曰聞上付公以四書經書吐釋之定 有諸 希春對曰有之 (甲戌 10月 13日)
32. 臣希春……又啓曰臣頃受四書諸經吐釋詳定之命 (甲戌 12月 1日)

四書五經의 口訣과 諺解란 같은 事業을 口訣과 釋(이에 대하여는 後述), 吐와 釋이라 적고 있다. 口訣과 吐가 同義語라야만 可能한 記述인 것이다. 같은 日記 (甲戌 11月 8日)에서 洪範의 一節인 「欲中人以上 皆可能也」의 上아래 口訣을 進講할 때 잘못 「是」(이)라 하였으나 「乙」(을)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記事가 보인다. 이 경우도 吐와 口訣을 같은 뜻으로 함께 쓰고 있다. 이것은 비단 柳希春에 局限되지 않는다. 李珥에 있어서도 같다. 우리가 口訣이라 한 것을 吐라고 쓰고 있는 것이다. 다음 章에서 實例를 들 中庸吐釋이란 책의 吐가 바로 그것이다. 또 이 책과 같이 書名에 쓰인 吐도 口訣임을 말하는 例가 있다. 壬辰亂以前의 攷事撮要에 의하면 諺吐小學(鳳山), 懸吐小學(安東)의 册板이 있는데, 이 書名의 吐가 그것이다.[11]

그러면 吐란 어디에서 由來하는 것일까? 이것은 句讀의 「讀」와 連關이 있을 듯하다. 1707年 (肅宗 33)의 禮記大文諺讀의 諺讀가 諺吐로서 한글 吐를 가리키는 것이고, 또 近代에 吏讀를 吏道, 吏吐라고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吏讀의 語源을 正確하게 밝힐 수 없는 現在로는 더 이상의 천착은 삼가기로 한다.[12] 다만 吐가 口訣과 꼭같은 뜻으로 15世紀 中葉 부터서 使用되어온 事實만을 거듭 明記하고자 한다.

이 章을 마치면서 口訣의 表記에 대하여 一言하여 두고자 한다. 筆者는, 口訣과 吐는 읽을 때 나타나는 것이고, 文字로 表記된 경우는 口訣文이라 할 것을 提議한 일이 있다(註 2의 要旨를 참조). 그러나 위에서 보아온 바와 같이 表記된 경우에도 口訣이라 指稱되어 왔으므로 그 提議는 지나친 느낌이 있다. 表記된 경우도 口訣이라 하여 無妨할 것이다. 그런데 口訣의 表記手段에는 한글과 借用漢字가 있다. 이것은 區別할 必要가 있다. 한글口訣과 吏讀口訣, 보다 줄어진 한글吐와 吏讀吐로 부르는 것이 좋으리라 믿는다. 吏讀吐인 漢字는

11) 1518年 (中宗 13) 3月 姜渾의 二倫行實圖序에 의하면, 慶尙道觀察使 金安國이 慶州, 安東 등 5邑에 刊行시킨 책의 하나에 口訣小學이 있다. 安東소장 册板의 懸吐小學이 그것이 아닌가 한다. 小學에 吏讀와 한글로 口訣이 달린 책이 紹介된 일이 있다. 다음을 참조할 것.
李仁榮, 淸芬室書目, pp. 35—37.

12) 口訣과 吐의 用法이 完全히 一致하느냐에 대하여는 若干의 問題가 있다. 漢字의 虛字를 口訣, 곧 입겾이라 한 일은 있으나, 吐라 부른 일은 없기 때문이다. 口訣은 口訣의 機能에 의하여 생긴 이름이기 때문에, 機能이 같은 虛字에 通해 쓸 수 있으나, 吐는 口訣이 나타나는 位置로 말미암은 이름이므로 虛字와 通해 쓰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이 점을 除하면 口訣과 吐는 完全히 꼭같은 用法을 보여주는 것이다.

正體와 略體가 쓰인다. 正體의 漢字는 正字吏讀吐, 略體의 漢字는 略字吏讀吐라 부른다. 물론 한 文獻에서 正體와 略體는 混用되는 일이 있고, 심지어는 墨書로 記入된 吏讀吐에는 한글이 섞이는 일도 있다. 그러므로 한글吐와 吏讀吐등의 區別은 墨書記入의 資料에서 相對的이고, 正字吏讀吐와 略字吏讀吐의 區別은 刊本資料에서도 相對的인 것이다.

Ⅲ. 訓讀과 그 한 資料

오늘날 漢文을 읽을 경우에는 句節에 口訣을 달고, 原典의 漢文을 音讀한다. 口訣없이 읽혀지는 死者를 相對한 祝文은 例外지만, 다른 모든 漢文에는 口訣이 들어가서 音讀되는 것이다. 앞 章에서 說明한 口訣과 吐는 그러한 機能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漢文의 讀法은 古代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을까? 序言에서 말한 舊譯仁王經은 이와는 다른 讀法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다. 漢文을 翻譯하여 읽는 方式이다. 이것을 音讀과 對立시켜 訓讀이라 부르기로 한다.[13] 그러면 이 訓讀은 漢文의 學習에서 音讀과 더부러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가를 살펴야 한다. 訓讀, 곧 舊譯仁王經이 보여주는 讀法의 性格이 거기에서 올바로 把握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관하여는 柳希春의 日記가 重要한 資料를 提供한다.

柳希春은 經筵에서 宣祖의 글읽는 것을 昭詳히 記錄하고 있다. 지금부터 약 400年前의 漢文學習의 모습을 그대로 알려준다. 그 記錄은 다음과 같다.

33. 上讀前受一次 玉音琅琅 臣以經筵上番 進講大學正心章 自所謂修身在正其心 至或不能不失其正矣 音讀二度 釋一度 上即音讀一度 釋一度畢 (丁卯(1567) 11月 5日)
34. 晝講……希春講大學或問格物致知章 上讀音一遍 臣誤說補亡章之義 上曰時未釋 姑停之 臣即伏地 俟御釋畢 臣曰云云 (庚午(1570) 7月 17日)

여기 音讀이란 口訣을 넣어서 읽는 것을 가리키고, 釋이란 訓讀을 가리킨다. 이 音讀과 訓讀은 漢文學習의 必須要件으로 보인다. 音讀을 하여 漢字의 讀音과 文脈을 正確히 알아야 하고, 訓讀을 하여서는 文意를 正確히 把握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學習이 音讀만으로 끝날 수는 없다. 위 34가 그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 引用文에서 말하는 音讀과 釋이 과연 우리가 말하는 音讀과 訓讀이냐는 問題가 있다. 그러나 理在 口訣을 넣지 않는 音讀이란 祝文以外는 없기 때문에 달리볼 수가 없다. 釋은, 앞 章 (특히 引用文 30 참조)에서 口訣의 同義語로서 吐를 言及하면서 말한 諺釋이란 用語가 있으므로, 諺解 또는 翻譯이라 해석된다. 中庸吐釋이란 책이 그 解釋의 正當性을 實證한다.

13) 訓讀을 沈교수는 註 1)의 글에서 釋讀이라 불렀다. 그러나 곧 보게 될 바와 같이, 번역하여 漢文을 읽는 것을 釋이라고만 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訓讀, 또는 釋이라 부르고자 한다.

李珥의 手稿本인 中庸吐釋은 解放前까지 黃海道海州의 李鍾文氏가 소장하고 있던 책이다. 現在 그 行方이 알려져 있지 않으나, 朝鮮史料集眞 上第二輯 (서울 1935) 에 실린 書影으로 그 모습을 알 수 있다. 그 第一章의 첫 大文을 보기로 한다.

35. 性이오 道오 敎ㅣ니라 ○天이 命ᄒᆞ샨거슬 닐온性이오 性을 率ᄒᆞᆫ거슬 닐온道ㅣ오 道脩ᄒᆞᆫ거슬 닐온敎ㅣ니라 (1a)

口訣이 들어갈 原文句節의 끝字와 口訣을 먼저 든 뒤에 諺解를 한 體裁이다. 즉 吐를 싣고 釋을 실어 놓았다. 書名 吐釋은 이렇게 하여 생긴 것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口訣 앞의 原文을 줄이지 않고 적는다면, 곧 諺解文의 體裁가 된다. 실제로 1749年 (英祖 25) 洪啓禧에 의하여 刊行된 中庸栗谷先生諺解가 그렇게 하여 이루어진 책이다. 漢字에 讀音이 附記되었을 뿐이다. 그 讀音을 除外하고, 위의 部分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36. 天命之謂聖이오 率性之謂道ㅣ오 修道之謂敎ㅣ니라／天이 命ᄒᆞ샨거슬 닐온性이오 性을 率ᄒᆞᆫ거슬 닐온道ㅣ오 道를 修ᄒᆞᆫ거슬 닐온敎ㅣ니라 (1a)[14]

이로써 우리는 釋이 곧 諺解임을 確認하게 된다. 諺解는 16世記 10年代 文獻인 二倫行實序, 老朴集覽凡例 등에 비로소 나타나지만, 15世紀에는 譯解, 譯, 翻譯 (이상 釋譜詳節序), 翻書(楞嚴經諺解 信眉跋), 反譯 (同 韓繼禧？跋), 諺釋 (永嘉集諺解 信眉跋), 諺譯(內訓跋) 등으로 불리어진다.[15] 모두 같은 뜻이다. 이들 諺解書의 諺解는, 中庸吐釋의 釋을 포함하여 모두 漢文의 訓讀인 것이다. 釋譜詳節 등 몇 책을 제외한 다른 諺解書에서 原文에 한글 吐를 써놓은 것은 곧 音讀을 보인 것이다. 여기 柳希春이 말한 音讀이 口訣을 넣어서 읽는 것임을 거듭 알게 된다. 釋이 따로 있는데, 한글 吐가 있는 原文의 讀法을 釋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漢文의 訓讀이란 곧 翻譯이라는 說明을 하였다. 그러므로 訓讀의 歷史는 곧 翻譯의 歷史라 할 수 있다. 여기서 翻譯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從來 알려진 翻譯으로서 가장 빠른 것은 吏讀로 된 1395年 (太祖 4)의 大明律直解다. 비록 吏讀로 되었지만, 當時의 사람들이 「逐字直解」(同 金祗跋), 또는 「譯以方言」(鄭道傳의 朝鮮經國典憲典總序)이라 한 바와 같이 堂堂한 翻譯인 것이다. 十惡의 첫째인 謀反의 註釋原文과 翻譯文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37. 謂謀危社稷／社稷乙 謀亡爲只爲 作謀爲行臥乎事 (Ⅰ, 4a)

이러한 吏讀文으로써 翻譯이 행해진 例는 또 있다. 이보다 20年이 뒤진 1415年 (太宗

14) 이 部分을 1590年(宣祖 23)의 校正廳本 中庸諺解와 對照하여 보면, 中庸吐釋이 곧 中庸栗谷先生諺解임을 알게 된다. 口訣은 中庸諺解도 같으나, 諺解는 다음과 같이 다르다.
하ᄂᆞᆯ히 命ᄒᆞ샨거슬 닐온性이오 性ᄋᆞᆯ 率ᄒᆞᆯᄊᆞᆯ 닐온道ㅣ오 道ᄅᆞᆯ 닷글ᄊᆞᆯ 닐온敎ㅣ니라 (1a)

15) 題簽 같은 곳에는 15世紀도 諺解가 나타난다. 가령 서울大學校中央圖書館 가람文庫소장 楞嚴經諺解 卷五(乙亥字本)의 題簽에 楞嚴經諺解라 있다.

15)의 養蠶經驗撮要다.[16] 그 첫 大文만을 보인다.

38. 蠶陽物 大惡水 故食而不飮／蠶段 陽物是乎等用良 水氣乙厭邪 桑葉叱分喫破爲遣 飮水不多(1a)

吏讀로 된 이들 翻譯은 위 두 文獻이 한결같이 原文과 距離가 있는 意譯이라 할 것이다. 즉 37에서 原文의 「謂」가 翻譯文에 보이지 않고, 38에서 原文의 「食」을 敷衍하여 翻譯하고 있다. 더욱 이들의 特徵的인 文體는 後代의 吏讀文에는 傳承되지만 한글에 의한 翻譯에서 자취를 감춘 점이 注目된다. 그 文體란 文末이 名詞化된 「爲乎事, 不多」로 된 事實에 端的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特徵때문만은 물론 아니겠지만, 한글創制 以後는 자취를 감춘다. 한글로 된 翻譯이 쏟아져 나온 것이다. 그러나 16世紀에도 吏讀로 된 翻譯이 있다. 1541年의 牛馬治療方이 그것이다.

우리가 調査한 牛馬治療方은 原刊本을 改刊한 1578年의 無旁點 乙亥字本이다. 原刊本과는 달리 旁點이 없어졌으나, 글의 內容에 큰 差異가 없으므로 책 體裁는 原刊本과 같다고 할 것이다.[17] 그 體裁는 吏讀와 한글에 의한 두가지 翻譯을 함께 실어 놓은 것이다. 아주 독특한 諺解書다. 이제 卷頭의 染疫病에 관한 部分의 原文, 이어서 吏讀와 한글로 된 翻譯을 들어 보인다.

39. 治牛馬時疫病 獺肉及屎煮汁 停冷灌之／牛果馬矣 交相傳染病乙 治療爲乎矣 獺肉是乃獺糞是乃 煎煮待冷爲良 牛馬口良中 灌注爲乎事／쇠며ᄆᆞ리며 서로뎐염ᄒᆞ얏ᄂᆞᆫ병을 고툐ᄃᆡ 너고릐고기나 너그릐ᄯᅩᆼ이나 므레글혀 그즙을 머믈워ᄎᆞ거든 이베브으라 (1)

두 翻譯文은 意譯인 점에서 共通된다. 한글의 翻譯文은 吏讀文을 翻譯한 것이라 생각될 程度다. 그러나 文體에 있어서는 完全히 다르다. 吏讀文은 앞의 37, 38의 特徵을 그대로 갖지만, 한글翻譯文은 다른 諺解書와 같다. 요컨대 表記手段이 다를 뿐아니라, 翻譯도 다른 것이다. 이것은 重大한 問題를 불러 일으킨다. 이와같이 한 原文에 두 翻譯이 함께 실렸을 경우, 訓讀은 어느 한 쪽인가, 아니면 두 가지인가 하는 점이다.

이 問題는 비단 牛馬治療方에만 그치지 않는다. 비슷한 事例가 많다. 아는 바와 같이 小

16) 通文館 李謙魯氏소장本인데, 書誌學 6號(1974)에 影印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原刊本인가에 대하여서는 疑心스런 점이 있다. 비슷한 刊記가 2張이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覆刻이라 하더라도 字體 등 正確하게 覆刻한 것이므로 內容의 變改는 없어 보인다.

17) 筆者가 調査한 것은 日本의 宮內廳書陵部소장本이다. 簡易辟瘟方과 合綴되어 있다. 이 簡易辟瘟方은 民族文化硏究 7號(1973)에 影印된 책과 同一本인데, 刊年은 1578年(宣祖 11)이다. 이 해에 內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書陵部本은 1578年의 改刊本이다. 牛馬治療方의 原刊은 卷頭啓文에 의하여 1541年 (中宗 36)임을 알겠는데, 日本에 있다고 하는 有旁點活字本이 그것에 가까우리라 믿는다. 이 책에 대하여는 다음을 참조할 것이다.

三木榮, 朝鮮醫書志, 大阪 1973, pp. 262—66. ／小倉進平, 增訂朝鮮語學史, 東京 1940, pp. 334—37.

學은 翻譯小學과 小學諺解로 달리 翻譯되었다.[18] 이 경우 訓讀이 달라졌다고 할 것인가. 法華經이 釋譜詳節, 月印釋譜, 法華經諺解로 세번이나 翻譯되었다. 더우기 그 序文에서는 分明히 翻譯이라고 하였으나, 釋譜詳節과 月印釋譜에는 原文조차 없다. 이것을 訓讀이라 할 수 있을까. 이와 結付하여 33, 34에서 말한 音讀과 釋은 漢文學習에서는 행해졌지만, 보통 讀書에서는 音讀만 행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主張도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漢文學習에서 音讀과 訓讀이 있었다 하더라도 翻譯이 곧 訓讀이라는 素朴한 等式은 再考되어야 한다. 訓讀이 原文을 翻譯하여 읽는 讀法이긴 하나 翻譯文을 읽으면 곧 訓讀이 되는 것은 아니다. 訓讀과 翻譯의 差異를 規定할 必要가 있다.

여기서 우리는 舊譯仁王經에 새삼 눈을 돌리게 된다. 이 資料는 原典인 漢文의 行間에 墨書記入이 있다. 記入된 一定한 記號와 文字에 따라 그 原典을 읽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語順도 國語의 語順대로인 翻譯이 된다.[19] 結果에 있어서 吏讀나 한글의 翻譯文을 읽은 것과 꼭같다. 그러나 읽는 對象은 전혀 다르다. 舊譯仁王經은 비록 墨書의 도움을 받지만 原典의 漢文을 읽는 것이고, 後者는 翻譯文을 읽는 것이다. 여기 訓讀과 翻譯의 差異가 있다. 다시 말하면 舊譯仁王經은 訓讀資料가 되지만, 大明律直解나 한글創制後에 나온 諺解書의 翻譯文은 翻譯인 것이다. 그러므로 33, 34의 釋을 訓讀이라 할, 경우 다시 말하면 漢文學習에서는 訓讀도 있었다고 할 경우에는 原典漢文을 읽었다는 前提가 成立되어야 한다. 諺解書의 諺解部分을 읽었다면, 單純한 翻譯은 되지만, 訓讀은 결코 안 된다.

지금까지의 論述로서, 訓讀의 槪念은 究明되었으리라고 筆者는 믿는다. 이것을 可能하게 하는데 舊譯仁王經이 資料로서 갖는 하나의 價値는 있다. 그러나 여기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것이 口訣資料이고, 또 口訣의 原來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을까. 사실 이 資料에 記入된 墨書는 15世紀 以後의 記入된 口訣과 酷似한 모습이다. 그러나 音讀과 訓讀으로 달리 쓰인 墨書를 같은 口訣이란 用語로 부른다면, 用語의 混亂만 일으킬 것이다. 앞 章에서 본 바와 같이 15世紀 以來로 口訣이란 用語는 一定한 槪念으로 쓰여 왔다. 그것을 새로운 槪念으로 고쳐서 쓸 것까지는 없어 보인다. 筆者는 略字吏讀에 의한 訓讀資料라고 부르고자 하는 것이다.[20]

---

18) 한 原典이 두번 以上 翻譯된 것에 대하여는 다음을 참조할 것.
筆者, 中世國語 研究資料의 性格에 대한 研究, 語學研究 9卷 1號(1973), pp. 75—86.

19) 이에 대하여는 註 1)의 沈在箕교수의 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그런데 이 舊譯仁王經을 正確히 하여 둘 必要가 있다. 지금까지의 紹介에서 이들 墨書를 가진 책이 舊譯仁王經이라고만 불려졌으나, 사실은 舊譯仁王經 卷上이기 때문이다. 左邊欄 안쪽에 「舊譯仁王經上」이라 明記되어 있는 것이다. 羅什(350—409 A.D.)이 翻譯한 舊譯(또는 舊本) 仁王經은 2卷으로 된 佛說仁王般若波羅蜜經인데, 上下卷을 明示하지 않은 張次는 不完全한 記述이다. 不空(602—664)이 翻譯한 新譯(또는 新本) 仁王經은 仁王護國般若波羅蜜多經인데 역시 2卷이다. 新舊譯을 莫論하고 仁王經은 卷次를 반드시 밝혀야 하는 것이다.

20) 舊譯仁王經이 보여주는 國語史資料를 訓讀이라 하느냐 口訣이라 하느냐는, 사실 用語의 混亂

그러나 이 提議는 舊譯仁王經이 14世紀 資料란 事實을 看過하였다는 非難을 免하지 못할 것이다. 15世紀의 口訣이 14世紀에도 꼭같은 槪念으로 쓰였다는 保障은 없기 때문이다. 다른 槪念으로 쓰였다는 保障도 물론 없지만, 그 非難은 一面의 妥當性을 갖고 있다. 그런데 한글創制 以後의 文獻이면서 舊譯仁王經과 같은 訓讀資料가 있다. 그 資料는 한글吐가 있는 刊本인데, 다시 墨書記入이 있는 것이다. 性格이 다른 두 口訣이 共存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이 資料를 紹介함으로써, 우리의 提議를 뒷받침하려고 한다.

그 文獻은 口訣圓覺經이다. 圓覺經諺解와 同時에 刊行된 책이다. 口訣圓覺經은 한글로 口訣만 있는 乙酉字本이고, 圓覺經諺解는 諺解까지 있는 木版本이다. 그러나 口訣은 두 책이 完全히 一致한다. 口訣圓覺經은 覆刻本도 있어서 그 全秩이 갖추어져 있다. 筆者가 調査한 책으로서 訓讀資料를 보이는 것은 上一之二 1冊과 下三之一·二 1冊이다. 訓讀表示에 若干의 差異가 있으므로, 前者부터 紹介하기로 한다.

上一之二는 서울大學校中央圖書館 가람文庫소장이다. 乙酉字本이며, 大部分이 藁精紙로 된 책이다. 1465年 (世祖 11 乙酉)의 刊本인 것이다. 그러나 墨書인 訓讀方法의 記入이 이루어진 年代는 明確하지 않다. 그런데 이 年代와 關聯하여, 같은 筆致의 欄上에 있는 語句풀이의 墨書가 注目된다. 그것은 諺解本의 夾註를, 旁點과 漢字讀音만을 省略한 채, 그대로 옮겨적은 것이다. 그 한 例를 보인다.

40. 塵은 世界ᄆᆞᆯᄊᆞ아 ᄃᆞᆫᄀᆞᆯᄆᆡᄆᆞ라 ᄒᆞᆫᄃᆞᆫᄀᆞᆯ로 ᄒᆞᆫ德用ᄋᆞᆯ ᄉᆞᄆᆞᆯᄉᆡ 하다 니ᄅᆞ고 沙ᄂᆞᆫ 恒河中에 잇ᄂᆞᆫ ᄆᆞᆯ앳數ㅣ라 (3b)

이것은 原文「本有過塵沙之妙用」의 윗쪽에 있는 墨書다. 諺解本의 같은 卷 14b에 그대로 나타나는 內容이다. 16世紀後期 文獻부터 廢棄되기 始作한 ㅿ까지도 正確히 옮겨놓고 있다. 17世紀以後에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 책의 墨書는 訓讀資料를 包含하여, 늦어도 壬辰亂以前에 이루어졌다고 생각된다. 訓讀資料에 보이는 略字는 壬辰亂以前의 略字吐에 共通된다. 이것으로도 訓讀資料의 年代는 책의 刊年인 1465年을 上限으로 하여, 大體로 16世紀末을 下限으로 한다고 하겠다.[21] 이제 그 訓讀資料의 具體的인 모습을 보기로 한다.

訓讀方法을 表示한 墨書는 原文漢字의 左右와 두 漢字 사이에 記號 또는 文字를 附記함으로써 행하여진다. 原文漢字의 바른 쪽에는 大體로 하글吐로서 잘리어진 句節을 單位로 한 數字가 적혀서 訓讀의 順序를 나타낸다. 단, 四와 五등의 數는 一, 二와 같이 橫畫으로

만 없다면 그리 큰 問題가 아니다. 正確하게 解讀하여 國語史의 敍述에 活用하는 것이 問題다. 그것은 國語學界의 새로운 課題라 할 것이다. 우리는 그 解讀을 期待하여 마지 않는다.

21) 處格助詞「예」, 共同格助詞「와」 등에 이르기까지 中世語의 特徵을 보여준다. 다만 ㅿ이 ㅅ으로 쓰인 例가 있다. 곧 나올 引用文 43의 「아ᄉᆞ」(奪)와 強勢助詞「ᅀᅡ」가 沙(上一二 6b)로 나타난다. 南部方言을 背景으로 한 資料가 아닐까 한다. 後考를 기다린다.

적힌다. 原文漢字의 왼쪽에는 漢字의 釋과 文脈表示의 助詞 등이 적힌다. 釋은 漢字의 왼쪽 옆에다가 한글(드물게 借用漢字)로써 적는데, 完全히 表示하거나 部分的으로 表示한다. 漢字의 釋이 漢字語일 때는 正字인 漢字를 같은 要領으로 附記하는 일이 있다. 文脈 表示의 助詞 등은 中世語의 口訣資料와 같이 略字인 借用漢字로써 漢字의 왼쪽 아래에 적힌다.[22] 그 實例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引用文의 理解를 돕기 위하여 諺解文을 뒤에 對照하여 둔다.[23]

41. 常果偏으로 (2a)——常과 偏과로 (13b)
42. 若有會歸一極(至)於是ᄒᆞ야 以玄(微妙)爲隱爐로 陶(노기) 於群(한)像乙ᄒᆞ며 (7b)——ᄒᆞ다가 ᄒᆞᆫ至極에 되화가 微妙ᄒᆞᆫ 불무로 한像을노기며 (17b)
43. 形(나토) 彌奪(아ᄉᆞ) 彌圓融ᄒᆞ야 (32b)——나토며 아ᄉᆞ며 두려이노가 (62b)
44. 無心於合(어우) 於是이어든 合(어운거시) 者ㅣ合焉이라ᄒᆞ니라 (84b)〔사진 1 참조〕——어우루메 ᄆᆞᄉᆞ미 업거든 어운거시 어우ᄂᆞ다ᄒᆞ니라 (159b)



[사진 1]

한글吐가 달린 原文을, 數字의 차례와 附記된 文字에 따라서 읽으면 덧붙여 놓은 翻譯文과 같아진다. 漢文의 訓讀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訓讀에서는 아예 無視되는 漢字가 있다. 數字가 附記되지 않은 「以, 於, 者, 焉」이 그것이다. 거의 虛辭들이다. 여기서 訓讀은 實辭를 中心으로 한 讀法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訓讀資料에 보이는 記號는 따로 두 가지가 더 있다. 連續되는 漢字가 熟語이어서 分離되지 않는 경우, 漢字사이에 세로 線을 긋는 것이 그 첫째다. 그러한 漢字는 音讀됨이 보통이나, 한 單語인 固有語로 읽혀지기도 한다. 이 때 字順의 數字는 세로

22) 借用漢字의 畫이 적을 때는 正字로써 적힌다. 이들 책에 나오는 借用漢字를, 읽혀진 固有語의 가나다順으로 配列하면 다음과 같다. 略字는 正字로 고쳐쓰고, 괄호 안에 附記한다.
果(ホ, ハ) 隱(ㄱ) 飛(ヒ) 奴(又) 尼(ヒ) 矣(厶) 乙 羅(丶) 利(刂) 彌(久) 叱(七) 沙(氵) 舍(人) 示(ニ) 匡(ク) 也(フ) 於(扌) 亦(亠) 午 臥(卜) 衣(ナ) 是(𠂉) 爲(ソ) 乎(丿) 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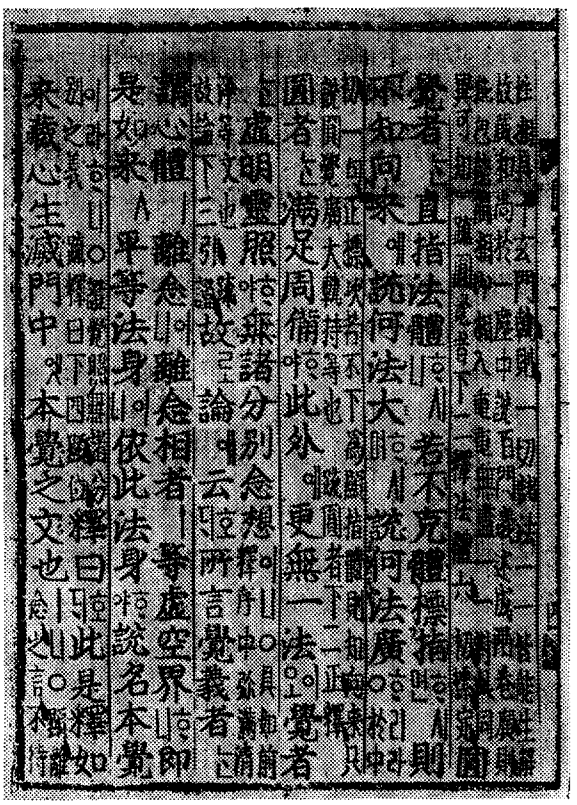
23) 印刷의 便宜를 위하여 4個 以上의 橫畫은 數字로 바꾸고, 略字는 正字로 고쳐 놓는다. 墨書

線의 바른 쪽에 적힌다. 한 單位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세로 線을 가로로 하여 보이면 다음과 같다.

45. 雖流一浪六二道ᄒᆞ야 (3b)——비록 六道애흘러 (14b)
46. 覺一性이 徧(周)兮 滿(ᄆᆞ) ᄒᆞ야 (4a)——覺性이 周徧히 ᄆᆞᄃᆞᆨᄒᆞ야(15a)

그 둘째는 數字와 함께 漢字의 바른쪽에 나타나는 ◦標다. 數字가 句節을 單位로 한 字順이라면, 이 記號는 그 보다는 上位의 順序를 表示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記號는 文章全體의 順序를 보이는 것이다.[24] 다음이 그 例文이다.

47. 當知六一根이 徧滿法一界亦是ᄒᆞ며 (4a)——六根이 法界에 周徧히 ᄆᆞᄃᆞᆨᄒᆞ올 반ᄃᆞ기 아롤디며 (15a)
48. 若不克體乙標爲也指ᄒᆞ시면 則不(毛) 知向一來(아릭)에 說何法大ᄒᆞ시며 說(니르실ᄃᆞᆯ) 何法廣ᄒᆞ리라 (4b) 〔사진 2 참조〕——ᄒᆞ다가 體를一定히標ᄒᆞ야 ᄆᆞᄃᆞᆨ치디아니ᄒᆞ시면 아릭 어느法을 크다니ᄅᆞ시며 어느法을 넙다니ᄅᆞ신ᄃᆞᆯ 아디몯ᄒᆞ리라 (15a)



[사진 2]

다른 또하나의 訓讀資料인 下三之一 下三之二 2卷1册의 口訣圓覺經은 본래 通文館의 李謙魯氏소장이었으나 現在 南豊鉉교수소장으로 되어 있다. 上一之二와 꼭같은 乙酉字本이고 간혹 藁精紙가 섞여 있는데 1465年에 刊行된 책이다. 이 책도 訓讀資料는 墨書로 記入된 것이다. 그밖에 欄上, 또는 行間에 註釋도 記入되었는데, 이들 墨書年代의 下限은 앞 책에서 말한 것과 같은 根據에서 壬辰亂直前이라 할 것이다. 그 根據인 行間註釋의 한 例를

의 位置도 바른쪽의 數字는 윗쪽, 왼쪽의 釋과 助詞 등 表記의 略字는 原文漢字의 뒷자리로 바꾼다. 단 釋은 괄호, 助詞 등을 表記한 借用漢字는 ・을 쳐 둔다.

24) 舊譯仁王經의 紹介에서 그 墨書가 日本에서 지금도 행해지는 漢文訓讀法과 비슷함이 指摘되었다. 그러나 이 口訣圓覺經의 墨書는 記號使用까지도 完全한 一致를 보여준다. 字順을 表示하는 數字와 그보다 上位의 順序를 表示하는 ◦標는 각각 日本의 訓讀法 表記에 나타나는 數字와 甲乙丙에 該當한다. 偶然의 一致만은 아닐 것이다. 古代부터 이루어진 文化交流의 結果가 아닐까 한다.

보인다. 原文의 「未曾捨離菩提之心이라ᄒᆞ시니라」에 이어 쓴 것이다. 한글과 함께 借用漢字의 略字를 섞어쓰고 있다. 文字使用의 特異한 例다.

49. 菩提叱ᄆᆞᅀᆞᆷᄇᆞ려 여희디아니ᄒᆞᄂᆞ니羅爲示尼羅 (下三一 50a)

이 책의 墨書로 된 訓讀方法의 表記도 앞에 紹介한 책과 大體로 一致한다. 그러나 數字가 四, 五까지도 文字로 적히고, 記號 ◦標를 볼 수 없음이 다르다. 앞 책과 같은 要領으로 實例를 보이기로 한다.

50. 比(마초와) 對果匪叱人乙컨맨 (下三一 3b)——果엣사ᄅᆞᄆᆞᆯ 마초아對컨맨 (5a)
51. 覺隱所一了乙者(거)ㅣ니 (下三一 21b)——所了 안거시니 (34a)
52. 後叱二隱間(ᄌᆞ옴) 果答爲舍ᄆᆞᆫ (下三二 1a)——後ㅅ ᄒᆞᆫ ᄆᆞᆫᄌᆞ옴과 對答ᄒᆞ샤ᄆᆞᆫ (2a)
53. 便得爲利羅超邪見匪ᄒᆞ야 證爲也覺乙般一涅一槃乙ᄒᆞ리라 (下三一 78a)——곧 邪見에 건너 覺을 證ᄒᆞ야 覺涅槃을 得ᄒᆞ리라 (135b)

이상으로 訓讀資料인 口訣圓覺經에 대한 紹介를 마치기로 한다. 이로써 口訣과 함께 訓讀이 別途로 存在함이 確認되었다고 믿는다. 그 訓讀은 14世紀의 舊譯仁王經에 나타난 墨書에 遡及되는 것이다. 아직 資料가 發見되지 않았을 뿐이나, 當時에도 吏讀吐에 의한 口訣表記가 共存하였을 것이다. 原典의 行間에 墨書로 記入하는 表記方式의 類似性에도 不拘하고 口訣과 訓讀의 峻別은 要望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의 問題가 提起될 수 있다. 즉 口訣圓覺經의 이른바 訓讀資料는 읽는 方式을 보인 것이 아니라, 諺解本의 翻譯을 베껴 써 넣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가 있다. 위의 引用文을 보면, 極히 작은 字句의 出入을 除하면 墨書記入과 對照된 翻譯은 完全히 一致한다. 더우기 앞에서 引用한 欄上 또는 行間에 記入된 註釋까지도 諺解文의 註釋을 베껴쓴 것이다. 訓讀資料라고 한 墨書는 圓覺經諺解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事實만으로는 訓讀資料가 아니라는 反證을 이루지 못한다. 그 理由는 다음과 같다.

첫째, 墨書가 모두 諺解文을 그대로 베껴놓은 것이 아니란 점이다. 諺解文과 다른 것도 있다. 紹介한 두 책에 나타난다.

54. 當爾(이러ᄒᆞᆫ) 之時예 (上一二 41a)
55. 三은 存(두어) 我乙失尼羅道乙ㅣ오 (下三一 5a)

이들을 墨書에 따라 訓讀하면 다음과 같아질 것이다. 덧붙여 놓은 諺解文의 翻譯과 對照하여 보면 그 差異가 드러나게 된다.

54.a. 이러ᄒᆞᆫ 時節을 當ᄒᆞ야——이ᄅᆞᆯ 當ᄒᆞᆫ 時節에 (77b)
55.b. 세혼 我ᄅᆞᆯ 두어 道ᄅᆞᆯ 일호미니라——세혼 我ᄅᆞᆯ 두면 道ᄅᆞᆯ 일호미오 (7b)

실제로 引用文 55는 諺解書에서도 이 訓讀資料와 같이 나타나는 일이 있다. 그러므로 訓讀資料인 墨書가 權械的으로 베낀 것이 아니라, 잘못된 諺解는 따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

다. 그것을 이 諺解書의 다른 곳에 있는 例文이 말한다.

56. 三은 存我失道ㅣ니——세흔 我를 두어 道일호미니 (下三一 38b)

둘째로, 보다 根本的인 것은 訓讀의 定義에 비추어서 그 墨書는 訓讀資料인 점이다. 우리는 위에서 原典漢文을 읽어서 翻譯이 될 경우 訓讀이라고 하였다. 비록 베낀 것이라 하더라도 翻譯에 關聯된 記錄을 原典이 갖고 있다면, 그것은 訓讀資料인 것이다. 그 記錄을 無視하고 印面만 읽을 수가 있다. 口訣圓覺經의 경우, 한글吐가 있는 印面만 읽는다면 音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다루는 對象은 印面의 原典漢文을 中心으로 하여 그 左右에 記入된 墨書다. 그것에 留意하여 漢文을 읽는다면 翻譯이 된다. 口訣圓覺經의 墨書는 舊譯仁王經과 꼭같은 訓讀資料인 것이다. 다만 口訣圓覺經은 한글吐가 있으므로, 口訣資料도 될 수 있음이 다를 뿐이다. 訓讀과 口訣의 差異를 다시 確認하는 것이다.

Ⅳ. 結　　論

舊譯仁王經의 發見으로 口訣과 그것을 表記한 借用漢字에 대한 關心이 높아진 것은 古代語의 硏究를 위하여 매우 多幸한 일이다. 古代語의 硏究는 우선 借用漢字의 解讀으로 始作되고, 그러한 解讀에 口訣資料는 가장 좋은 條件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25] 그러나 口訣에 대한 새로운 槪念規定이 提起되어 從來 써오던 口訣과 用語의 混亂을 빚게 된 것은 再考할 餘地가 있어 보인다. 이에 筆者는 口訣의 槪念을 分明히 할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와 關聯하여 漢文의 訓讀이란 새로운 用語도 必要함을 느끼게 된 것이다. 그러한 意圖에서 筆者는 지금까지 口訣과 訓讀의 定義, 그리고 訓讀이란 새로운 槪念을 成立시키게 한 訓讀資料의 紹介를 행하여 왔다. 例에 따라서 산만하게 展開된 論旨를 要約하고 所感을 덧붙여 結論을 삼기로 한다.

1. 口訣은 15世紀의 文獻에 처음으로 보이는데, 「입겾」이란 固有語의 吏讀式 表記다. 입겾은 口 또는 吟을 뜻하는 입과 事物의 副次的인 特徵을 가리키는 겾의 合成語다. 漢文을 읽을 때 文意의 바탕이 되는 原典漢文의 句節에 挿入되어 文意를 더욱 뚜렷이 하는 機能語인 것이다. 口訣은 中國語의 虛辭가 文章構成에서 맡는 것과 같은 機能을 갖는다. 요컨대 口訣이란 用語는 15世紀 以來로 꼭같은 槪念으로 쓰여 온 것이다.

2. 口訣의 同義語인 吐도 口訣이 처음 나타나는 무렵의 文獻에 보인다. 現在와 같은 뜻으로 使用된 用語다. 아직도 正確한 語源은 밝혀지지 않으나, 吏讀의 讀와 함께 句讀

25) 15世紀 以來로 같은 口訣이 한글吐와 吏讀吐로 나타난다. 이 둘을 對照함으로써 吏讀吐의 借用漢字는 正確하게 解讀된다. 口訣資料의 利點이 여기 있다. 위 註 2)의 要旨를 참조.

의 讀에서 온 것이 아닌가 한다. 吐는 그 놓여지는 位置가 句讀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 하더라도, 지나친 천착은 아니다.

3. 우리가 漢文을 읽을 때는, 讀祝을 除外하고는 언제나 口訣을 넣어서 音讀한다. 그러나 漢文을 배울 때는 翻譯하여 읽는 方式이 따로 있다. 漢字의 釋으로써 읽는 것이다. 文意의 正確한 理解를 圖謀하기 위한 讀法이다. 이것을 音讀에 對立시켜 訓讀이라 부르고자 한다.

4. 訓讀은 結果에 있어서는 翻譯文을 읽는 것과 같이 原文의 翻譯이 된다. 그러나 手段에 있어서 判異하다. 訓讀은 原文을 읽는 것이다. 이미 널리 알려진 舊譯仁王經과 여기 새로이 紹介된 口訣圓覺經은 原文에 附記된 墨書가 있고, 그것을 읽으면 翻譯이 된다. 訓讀의 資料인 것이다.

5. 1465年에 刊行된 口訣圓覺經은 한글吐가 印刷된 口訣資料인데도, 舊譯仁王經과 같이 墨書로써 訓讀을 보여준다. 舊譯仁王經을 口訣資料라 한다면, 口訣圓覺經은 性格이 다른 두가지의 口訣을 보여준다고 할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舊譯仁王經의 墨書를 訓讀資料라 하여 用語의 混亂을 막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6. 요컨대 舊譯仁王經은 여러가지 問題를 提起하였다. 口訣의 槪念을 再確認하게 하였고, 古書에 나타나는 墨書에 注意하게 하였다. 漢字借用에 의한 國語의 表記를 새로운 角度에서 檢討하게 한다. 筆者가 이 글에서 試圖한 口訣이란 用語의 規定과 紹介한 口訣圓覺經의 墨書는 바로 그것이 준 所得이라 믿는다. 口訣圓覺經과 같은 墨書는, 새로운 調査에 의하여 다른 文獻에서도 發見될 것이 期待된다. 그러한 作業은 舊譯仁王經의 墨書에 대한 完全한 解讀을 可能케 하고, 나아가서는 國語史의 叙述을 더욱 精密히 할 것이다. 이 글도 그 作業의 一環이기를 바란다.